

영어 강의 컨설팅에는 영어가 아닌 교육이 있다

저는 현재 경영대학원 박사과정에 재학 중이며, 2014년 1학기부터 학부 전공필수 과목 중 생산관리(Operations management)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어에 대한 특별한 두려움은 없었지만, 수업을 영어로 한다는 자체가 저에게는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3시간 동안 영어 수업을 진행하기 위해서, 영어로 스크립트를 작성하고, 읽고 수정하고, 다시 연습하는 시간이 반복되었습니다. 다행히 미국에서 학부를 마친 연구실 후배가 조교로서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렇게 한 주 한 주를 보내며, 한 학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올 해도 같은 수업을 준비하던 중 저는 CTL에서 보내주신 이메일을 확인하게 되었고, '영어강의 컨설팅'에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첫번째 목적은 스크립트 없이 강의를 진행해 보고 싶었습니다. 작년에는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스크립트를 열심히 작성했지만, 막상 수업 시간이 되어서도 스크립트를 그대로 읽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나와서 발표할 때 스크립트를 읽는 것은 좋지 않다고 평소에 후배들에게 알려 주었던 저로서는 제 자신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스크립트 없이 수업을 진행하기로 결정하고, CTL에서 촬영해 주시는 내 모습을 보며 스스로 점검해 보고 더 나아가 전문가 분들의 의견도 듣고 싶었습니다.

영어강의 컨설팅을 신청한 두번째 목적은 '영어 강의'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영어로 수업을 하다 보면 언어적인 장벽에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학생들도 질문을 할 때 올바른 표현을 찾지 못해서 힘들어 하거나, 수업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어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적인 측면에서 내가 수업시간에 사용중인 영어는 괜찮은지, 또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영어

● ● ●
김 영 진
서울대

로 인해서 어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컨설팅을 해주시는 교수님과 영어로 수업하는 저의 모습을 함께 보면서 영어 강의에 대한 자신감도 얻고 궁금했던 사항들도 풀리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어 강의라고 하여서 영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수업들과 마찬가지로 수업의 내용과 방법이 더욱 중요하다는 점을 깨닫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수님께서 강의 자료를 보여주면서 제가 답을 모두 설명하지 말고 학생들에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들어가면서 함께 생각하는 수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것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강의 자료를 재구성할 필요가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이전까지 너무 영어에만 초점을 맞추어 수업을 준비해 왔다는 것과, 그에 비해 교육의 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신경을 쓰지 못했다는 점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언어가 달라진다고 하더라도 교육이라고 하는 근본적인 원리는 변하지는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배울 수 있었습니다.